

# 연기금, 4개월새 4.6兆 매도 행진... 게임·엔터株는 샀다

인터넷 등 콘텐츠 관련주 순매수 크래프톤, 상장일 이후 매도 '제로' 신작·실적 기대감에 기관 러브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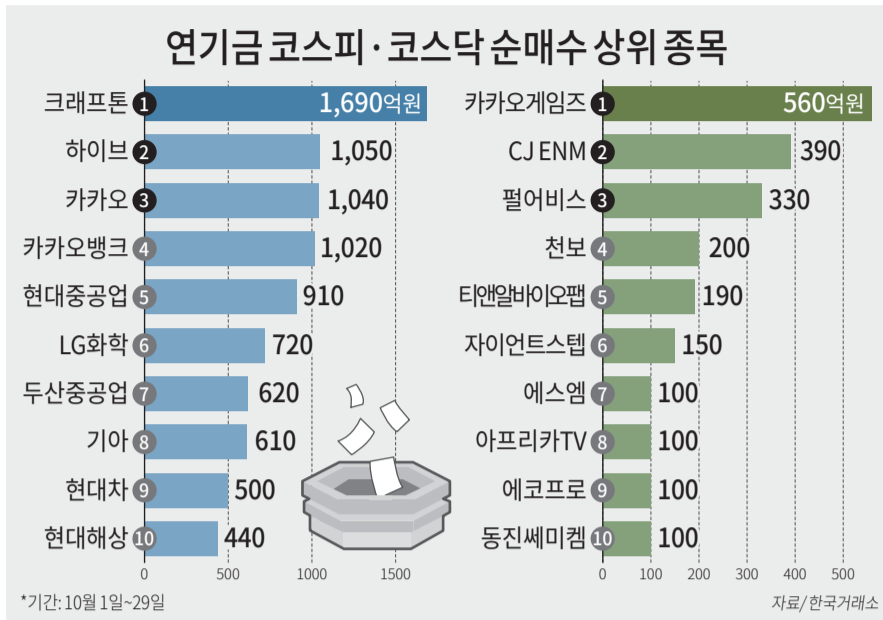
국내 증시 '큰손'인 연기금이 순매도 행진 속에서도 게임·엔터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기금은 크래프톤 상장일 이후로 단 한차례도 팔지 않았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 기관투자자는 국내 주식(코스피·코스닥) 7조649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 가운데 연기금은 4조6890억원을 순매도해 사모펀드(2조4180억원)와 함께 가장 많이 판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9.48% 하락했다.

거래소가 연기금으로 분류하는 수급 주체는 연금, 기금, 공제회와 함께 국가, 지자체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 우정사업본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국민연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연기금 톱픽은 크래프톤, 하이브, 카카오게임즈

연기금은 게임, 엔터(엔터테인먼트)



트), 인터넷 등 콘텐츠 관련주를 주로 사들였다. 콘텐츠 관련 업종은 실적 성장과 신규 자금 유입 전망이 긍정적이란 평가다.

지난 10월 한달간 연기금 코스피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은 크래프톤이었다. 169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어 하이브(1050억원), 카카오(1040억원), 카카오뱅크(1020억원), 현대중공업(910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출시, 미국 게임 개발사인 언노운 월드

스(Unknown Worlds) 인수를 통해 미래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가능해진 상태다. 언노운 월드는 크래프톤의 여섯번째 독립 스튜디오로 다양한 PC 및 콘솔 게임 개발에 나서게 된다.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하이브는 오프라인 콘서트의 본격적인 재개 등으로 위드 코로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또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 선점과 디지털 자산화에도 나선다. 하이브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BTS 굿즈를 대체불가능토큰

(NFT)으로 발행하기 위한 주식 맞교환(스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금의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콘텐츠 관련주가 대거 등장했다. 같은 기간 연기금의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에 카카오게임즈(560억원), CJ ENM(390억원), 펄어비스(330억원), 천보(200억원), 티앤알바이오랩(190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연기금, 크래프톤 1조 담은 이유는?

특히 연기금은 게임 배틀그라운드 제작사인 크래프톤에 대해 적극적인 순매수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래프톤의 상장일인 지난 8월 10일부터 단 한차례도 순매도를 보여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지난 8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크래프톤 1조990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개인은 7990억원, 외국인은 2800억원을 팔아치웠다.

크래프톤은 상장 이후 공모가(49만 8000원)를 밑돌고 있지만 신작 기대감과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 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상향 제시했는데, 메리츠증권 72만원, 미래에셋증권

67만원, 한국투자증권 58만원, 현대차증권 57만원 등의 순이다. 목표주가의 평균치는 63만5000원으로 현재 주가와의 괴리율도 24%에 달한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배틀그라운드 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글로벌에서 가장 흥행한 게임 콘텐츠로 올해 2분기 배틀그라운드의 PC, 콘솔, 모바일을 포함한 글로벌 일간 이용자수(DAU)는 5900만명 수준이며 월간 이용자수(MAU)가 DAU의 3~4배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약 2명씩이 월간 접속하며 플레이하는 글로벌 메가 지적재산권(IP)이다"라며 "글로벌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신선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즐기게 하기 위해 라이브 서비스, 콜라보레이션 등의 작업을 가속화하는 등 크래프톤의 게임 운영 능력과 콘텐츠 서비스는 점진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크래프톤의 언노운 월드 인수로 ▲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공략을 위한 장르 확장하며 ▲다양한 라인업을 확대 ▲IPO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개인가입자 보상액 1000원?... 소비자 '가웃' 형다·전력난 고비 넘긴 中

### KT, 통신장애 후속대응 논란

고객 보상액 350~400억원 예상 짧은시간 광범위 장애... 일괄 보상 3년 전 아현화재 비해 보상규모 적어

KT 유·무선 인터넷 접속 장애에 대한 보상은 개인·기업고객에게 15시간을 적용했다.

소상공인은 10일분의 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KT는 최장 장애 시간(89분)의 10배 수준으로 보상 기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년 전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 때보다 보상 규모가 훨씬 작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1인당 보상액을 개인 무선 가입자는 1000~2000원대, 소상공인은 7000~8000원대 요금 감면이 예상되고 1일 밝혔다. 이는 3년 전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 때보다 보상 규모가 훨씬 적어 KT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아현지사 화재 당시 가입자들의 요금 1~6개월을 감면해주고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40만~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아현지사 사고는 화재가 10시간 넘게 지속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에 수일이 걸리기도 해 피해가 큰 측면이 있었고, 상생보상협의체가 구성돼 피해 일수 별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

KT측은 "사건 발생 이후 1만건 정도의 고객 신고가 있었는데 장애 시간은 짧지만 범위가 넓다보니 개별적으로 파악이 어려웠다"며 "개별적인 접근이 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설명회에서 KT임원진이 고객에게 사죄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렵다고 생각해 약관 이상의 보상을 하기로 했으며, 속도와 투명성을 고려할 때 일괄 보상이 최선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번 고객 보상액으로 350억~4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KT는그간 연 4000여건의 야간 라우팅 작업을 수행하면서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의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점검해왔다. 또한 연간 4만여건에 이르는 네트워크 작업은 계획부터 관리·승인, 실행·검증까지 단계별 절차로 진행된다.

KT는 이 같은 절차가 있음에도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원인으로 ▲야간에 진행해야 할 작업을 주간엔 KT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 ▲사전 검증 단계에서 협력사 오류로 인한 명령어 누락을 파악하지 못한 점 ▲잘못된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정보가 옛

망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된 점을 들었다.

KT는 이 같은 원인에 기초해 기술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시행할 것을 다짐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가상화 테스트베드)해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할 예정이다. 또 현재 모든 센터망과 중계망 및 일부 옛망에 적용 중인 라우팅 오류 확산방지 기능(정보전달 개수 제한)을 모든 옛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단계는 네트워크 관제센터에서 미승인 작업 여부를 실시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위험요소를 차단한다. 3단계는 관제센터에서 KT 직원의 작업 참여를 인증한 후에야 실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검증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

## 형다·전력난 고비 넘긴 中 기술주 중심 증시회복 '꿈틀'

### 차이나 뉴스&리포트

HSBC, 中 주식 전망 상향 조정

중국 증시가 최악의 시기는 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증시를 끌어내렸던 규제 강화는 여전하지만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고, 형다사태나 전력난 역시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다.

1일 FT중문망에 따르면 중국 기술주 관련 지수는 지난달 초 저점을 기록한 이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달 27일 기준 저점 대비 나스닥 골든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18%, 홍콩 항셱 테크지수는 13% 이상 올랐다.

나스닥 골든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국 대형주 98개의 주가를 추종한다. 홍콩 항셱 테크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표 기술주의 주가를 반영한다.

중국 기술주는 지난 1년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11월 증거금만 3000조원이 몰린 엔트그룹의 기업공개(IPO)가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다. 특히 지난 7월 중국의 자동차 공유 플랫폼 디디추싱의 뉴욕 상장은 규제 강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중국 당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규제 역시 예측 가능한 영역이 됐다. 중국 국민 배달업을 불리는 메이탄 그룹에 부과된 벌금이 예상보다 적었고,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공식석상에 다시 등장했다.



지난달 29일 형다는 만기였던 달러채권 이자를 유예기간 종료로 앞두고 지급했다. 사진은 형다그룹 본사 전경 /뉴스IS

HSBC는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에 대해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 주식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BNP파리바자산운용의 중국 주식 책임자 데이비드 초아는 "정점은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테크 분야 규제는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규제는 경제 전반에 취해진 조치의 일부다"라고 말했다.

다만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은 낮지만 규제 이전 최고치 수준으로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구조가 덜 복잡한 기업들은 주가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 게임 기업 넷이즈의 주가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에도 20% 상승했다.

JP모건자산운용 신흥 아시아 태평양 시장 담당자인 알렉산더 트레브는 "게임이 중국 테크 산업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야 중 하나"라며 "중국에 투자하려는 사람이라면 규제는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